

# “모든 건축물은 문화의 물리적 결정체”

공간이 만든 공간  
유현준 지음

“동양의 도자기가 서양으로 대량 유입되면서 처음으로 영향을 받은 디자인 분야는 조경이다. 왜냐하면 수입된 도자기 표면에 보통 정원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서양인들은 생전 처음 보는 우아한 곡선 지붕의 건축물을 보고 흥미를 느꼈다. 그 충격은 마치 상자 같은 건물만 보면 서지러난 우리가 트랭크 계리의 ‘디즈니 콘서트홀’이나 동대문 ‘DDP’ 같은 곡면의 건축물을 보았을 때의 비슷한 충격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기존 유럽의 건축은 기하학적이고 직선의 경직된 모습인 반면, 도자기 속에 그려진 정자 건축은 자유로운 곡선의 모습이었다.”(본문 중에서)

법박하게 말하면 건축은 공간 예술이다. 특정한 공간 안에 존재하며, 음악과 같은 장르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덜 지배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건축은 문화의 물리적인 결정체라 할 수 있다.

건축은 공간이며 공간은 바로 문화이다.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양상을 지닌다. 도시로 인해 문명이 태동하고, 자연·지리적 제약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각 지역에 맞는 문화를 만들었다.

건축을 모티브로 문화의 진화를 이야기하는 책이 나왔다. ‘건축으로 세상을 조망하고 사유하는 인문 건축가’ 유현준이 펴



낸 ‘공간이 만든 공간’이 그것. 평소 건축가는 사회의 복잡한 관계를 정리해 주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전의 저서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처럼 이번 책도 유적인 제목이 눈길을 끈다.

책을 관통하는 주제는 한마디로 ‘건축물은 문화의 물리적 결정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건축이 구축되는 형식과 모양을 보면 그것을 만든 이의 생각과 문화를 비추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수량에 따라 논농사와 밭농사, 벼와 밀의 수확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건축도 자연·기후적인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비가 적게 오는 서양은 땅이 단단한 편이어서 돌, 벽돌 같은 자재를 사용한 다. 반면 비가 많이 오는 동양은 지면이 무른 탓에 방수재료인 주춧돌을 놓고 나무기둥을 세웠다. 또한 처마를 길게 만들고 지붕의 경사를 급하게 했다. 동양 건축이 기둥 중심의 건축을 하게 된 배경이다.

교통 또한 문화의 진화를 촉진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동서양의 교류는 건축에도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미스 반 데어 로에, 르 코르뷔지에 등 거장들도 동양의 ‘기둥 중심’ 건축을 수용해 새로운 구조를 탄생시켰다.



도산서원은 어느 한쪽방향으로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든 증식되는 구조를 볼 수 있다. <출처:유현준 지음>

벽 중심의 구조물은 안과 밖이 양분되는 구조지만 기둥 중심은 내외부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정자 등의 건축이 그런 예인데, 오늘의 ‘데크’(테라스)가 대표적인 공간이다. 이런 공간은 외부에 있지만 내부에 있는 듯한 착각과 아울러 개방감을 준다.

서양의 건축에 영향을 받은 동양 건축가도 있다. 일본 출신으로 ‘건축의 철학자’로 불리는 안도 다다오는 기존의 건축들과는 다른 동서양의 건축적 요소를 융합한 공간을 창출했다. 나오시마 현대 미술관, 상하이 디자인센터 등을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가로 유명하다.

건축가들은 타 장르의 예술가들처럼 세

로운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미술, 철학, IT 등 다양한 분야를 접목했다. 해체주의로 알려진 피터 아이젠만은 소프트웨어 도움으로 자유 곡선형 디자인을 했지만 시공 기술이 발전해 주지 못해 제대로 이어진 게 없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미래에는 어떤 요인이 공간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저자는 디지털 기기와 인공지능의 융합이 있는 곳에 새로운 문화가 출현할 것이라 예상한다. 그러나 기술에만 의존하면 다양성이 사라지므로 인간다움을 장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출처:유현준 지음·1만6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지금 이 순간도 돌아가고 싶은 그때가 된다=저자의 삶과 음악 그리고 예술적 이야기를 에세이로 엮었다. 술에 취한 새벽 귀갓길 택시 안에서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통해 흘러나오는 손석희의 냉철한 음성에 정신이 번쩍 들고, 생선의 살코기만 썩속 가져가는 상대방의 태도에 발끈한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스물에서 서른 사이, 가장 평범했지만 가장 빛났던 순간들의 감성을 글 속에 담아냈다.

▲삶을 위한 수업=‘행복한 사회, 행복한 삶’의 출발은 ‘행복한 교육’에 있다는 데 뜻을 같이한 덴마크 저널리스트 마르쿠스 베른센과 오현호 작가. 그들이 한국의 교사, 학부모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덴마크 교사들을 찾아 나섰다. 영어, 수학, 민주주의, 세계시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10명의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 철학과 수업 방식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들려준다.

▲홍보가 아니라 소통입니다=신문사 기자에서 인터넷 포털의 대외협력 책임자,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까지 울드 미디어와 뉴미디어를 넘나들며 끊임없이 소통을 혁신해온 ‘소통 전문가’ 정혜승은 기업·언론·정부 모두 일방적인 홍보가 아닌 ‘소통’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책을 통해 소통의 핵심, 전략, 방향 등을 설명한다.



▲창비·1만7000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부의 공식=주가 폭락, 소비 심리 위축, 무역 수지 적자 등 연일 뉴스에 경제 위기의 지표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뉴스는 남의 일이 아니다. 당장 내 일터에서 집값, 금리, 수입 등을 좌지우지하며 생계에 직격탄을 날릴 수도 있다. 저자는 이러한 위기를 역이용하면 큰 부를 쌓을 수 있다고 말하며 부자들의 생각과 태도를 배운 후 실천 투자를 해야 실패가 없다고 강조한다. <길벗·1만7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우리 반 내기 대장 광대호=내기에 쉽게 빠지는 아이들의 심리와 그것을 극복해 내는 과정을 그렸다. 반 친구들과 이런저런 내기를 하는 주인공 대호는 어느새 엄마 몰래 엄마 카드로 인터넷 도박을 하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엄마의 미용실에 있는 금고까지 손대게 된다. 결국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승사자 선생님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듣고 내기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 <어린이나무생각·1만2800원>

▲날아라, 호랑이=호랑이 리쿠는 새끼 호랑이 때부터 하늘을 나는 호랑이가 되겠다는 꿈을 꿨었다. 대단한 일을 해낸, 특별한 호랑이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늘을 나는 꿈’은 리쿠의 모든 것이 되고 연이은 실패에도 리쿠는 포기하지 않는다. 실패가 계속되자 리쿠는 좌절에 빠지고 친구 지미는 리쿠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 과연 리쿠는 날 수 있을까? <국민서관·1만3000원>

▲내 말 한마디=일상생활에서 별 뜻 없이 주고받는 말이 우리 생활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한다. 5학년이 된 첫날, 예진이는 급식을 먹다가 짝두기 국물을 태주의 옷에 튀긴다. 태주는 예진이에게 심하게 욕을 하며 몰아세우고, 예진이는 울음을 터뜨린다. 책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통해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전한다. <내일올려는책·1만1000원>



## 조기교육·조기전문화가 성공을 보장하진 않는다

### 늦깎이 천재들의 비밀

데이비드 엡스타인 지음, 이한음 옮김

아빠는 생후 7개월째 접어들어 아들에게 골프채를 주었다. 아이는 늘 퍼터를 질질 끌면서 보행기를 타고 돌아다녔다. 두 살 때 아들은 전국 TV 방송에 출연했다. 자기 어깨만큼 오는 골프채로 공을 쳐 사회자인 밥 호프의 감탄을 자아냈다. 그해 아들은 골프대회에 처음으로 출전해 10세 이하 부문에서 우승했다. 이후 그는 골프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고 골프황제가 되었다. 타이거 우즈 이야기다.

또 한 아이가 있다. 그는 걸음마를 떼기 시작할 때부터 공을 차고 놀았다. 스위셔도 하고, 야구, 탁구도 했다. 타이거 우즈의 아버지와 달리 아이의 장래 계획 같은 것은 전혀 세운 적이 없었던 부모는 그냥 아이에게 다양한 스포츠를 접해 보라고



복돋아 주었다. 10대에 들어서자 아이는 테니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가 마침내 축구구를 포기하고 테니스에 집중하기로 했을 때 또래 선수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근력코치 등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그의 발전에 지장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 30대 중반에 그는 여전히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다. 로저 페더러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뛰어난 성공을 거두는 길은 단 하나 뿐이라고 믿어왔다. 일찍 시작해서 일찍부터 전공을 정하고, 그 일에만 집중하고, 능력을 극대화하고 고 말이다.

뉴욕타임즈, 가디언 등에 기고하는 저널리스트이자 논픽션 작가인 데이비드 엡스타인이 쓴 ‘늦깎이 천재들의 비밀-전문화 된 세상에서 늦깎이 제너럴리스트가 성공하는 이유’는 조기 교육과 조기 전문화(협소하게 기술을 갖고 뒤늦게 가능한 일찍 시작하는 전문화 교육) 신화를 깨트리며 반론을 제기하는 책이다.

책은 ‘조기교육이라는 종교’, ‘전문성에 속다’, ‘경험 바깥의 세계’, ‘자신의 가능한 자아와 놀기’, ‘의도적인 아마추어’ 등 모두 12장으로 구성돼 있다.

저자는 각 분야에서 정점에 오른 사람들은 폭넓은 관심과 지적 호기심을 지닌 늦깎이 제너럴리스트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인생의 전반부를 여러 분야를 기웃거리며 보내다가 뒤늦게 한 곳에 정착한 사람들이다. 전혀 다른 분야의 지식을 연결하고, 유추하고, 종합하는 데 탁월한, 바로 ‘늦깎이 천재들’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인생의 성공은 빠른 출발이 아니라 오히려 ‘샘플링 기간’(자신의 적성과 관심을 폭넓게 탐사하는 기간)의 유무로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장기적인 성공을 원한다면 단기적인 성과에 현혹되지 말라는 주문이다.

그가 말하는 조기 전문화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을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든다는 데 있다. 전문가가 ‘경험을 통한 학습은 완벽하게 할 수 있지만, 경험한 세계 그 이상을 보여주지는 못한다.’고 말한다. 골프처럼 정해진 규칙 안에서 움직이는 친절한 세계가 아닌, 과제가 명확하지 않고 엄정한 규칙도 없는 사악한 세계에서 사는 우리에게도 경험 이외에 다양한 사례를 읽고 새로운 개념을 연관지어 종합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저자는 책의 말미에 “더 젊은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늘이 자신을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라. 사람은 저마다 발전 속도가 다르다. 그러나 누군가를 보면서 자신이 뒤처져 있다는 느낌을 받지 말라”고 말한다. <열린책들·2만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